

연간 100여명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전주시, 전국 최초 취업 연계 장애인 맞춤형훈련센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동시 유치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문 직업 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훈련 센터를 동시에 유치하는데 성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19일 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열린 맞춤형 훈련 센터 확정 심의를 거쳐 전주에 맞춤형 훈련 센터와 발달 장애인 훈련 센터를 통합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맞춤형 훈련 센터와 발달 장애인 훈련 센터가 신규 설치되는 지역은 각각 3곳으로 2개 센터가 동시에 설치되는 지역은 전주가 유일하다.

두 센터가 운영되면 연간 100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맞춤형 훈련 센터는 기업체와 사전 취업 계약을 맺고 그 직무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 최종 취업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발달 장애인 훈련 센터는 장애인 직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특수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 전공학과 학생에게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직업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현장 적응 후 고용 연

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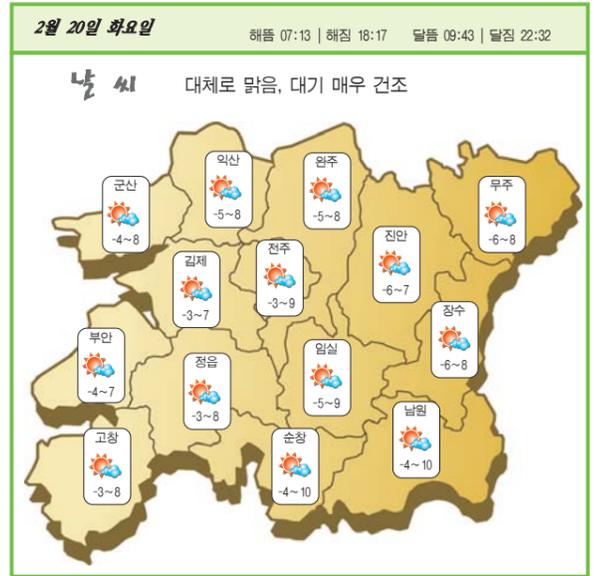
특히 최근 자폐성·지적장애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 집이나 주당기 보호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비장애인에 비해 훈련과 취업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 일자리로 진입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능력 개발 인프라 유치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센터 부지를 확보, 발달 장애인 훈련과 기업 연계 맞춤형 훈련, 취업, 장애인 고용 기업 지원 등 일련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 통합형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일 것”이라며 “따뜻한 전주, 가장 인간적인 전주형 복지 정책을 확대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북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들이 모험생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북대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19일 삼성문화회관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단과대학별로 20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열리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입학 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능력 배양과 소속감 고취, 그리고 학생 경력관리 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주요 학사 및 장학제도 소개와 동아리 공연과 함께 모험역량 강화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이 이어져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어 신입생들은 '워킹 캠퍼스 투어'를 통해 최첨단 도서관과 박물관, 학생회관 등 캠퍼스 곳곳을 돌아보고 단과대학과 학과별로 자신의 전공을 직접 듣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대학교가 19일 삼성문화회관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김민근 기자

내달 8일 고교 전국학력평가

오는 3월 8일 고등학생 대상으로 전국학력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전국학력평가는 도내 105개 고등학교에서 5만7,645명이 응시한다.

응시과목은 1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사회, 과학)이며 2~3학년은 국어 수학(가/나), 영어 한국사 탐구(사탐/과탐) 등 5개 과목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교육청, '일반직 글로벌 테마연수'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테마연수를 추진한다.

19일 전북도교육청은 국외 선진사례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제고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12개팀 84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테마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 교육협력 거버넌스, 친환경 교육 시설 및 학교 내진 보강 조사 등 지정과제 2개팀 24명과 자율과제 10개

팀 60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지원 희망자들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연수 대상자들이 최종 선발되며 지난 5년간 글로벌테마연수 참가자, 최근 3년내 국비, 지방비 외부단체 지원금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자는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2개팀이 창의적 놀이터, 자유학기제 운영, 방과후학교 등을 주제로 글로벌 테마연수를 다녀왔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 부패 방지 노력 권익위 '우수 평가'

2단계 오른 2등급 평가... 시책 개발·운영·교육 등 높은 점수

전북대학교가 부패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개 등급 중 우수기관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1개 국·공립대학을 비롯한 전국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생태계 조성 및 청렴문화 정책 추진 등 6개 항목에 대한 부패 방지

노력을 점수로 매긴 것. 지난해 4등급에 머물렀던 전북대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으면서 2개 등급이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 평가에서 전북대는 청렴생태계 조성 및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부문 등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균 86.5점을 받았다. 이는 11개 국·공립대학 평균인 81.8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북대가 내부 청렴문화 정착

을 위한 시책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북대는 반부패를 위해 25건의 추진 계획을 세워 100% 시책을 추진했고, 청렴업무 전담팀을 두고 제도화된 청렴추진 체계에 따른 구성원의 참여 실적 또한 매우 높았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전 직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교육과 청탁금지법 신고 규정 제정,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등 시

류 변화에 맞는 능동적인 대응으로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특히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평가를 받아 온 연구 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연구원 인건비 제도 개선과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감사, 연구비 관리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담 집행 등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한 전북대는 지난해 '청렴한 전북대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청렴운동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청렴 DAY'를 지정해 부서별 자체교육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고, 반부패 청렴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심의 및 개선방안 마련에도 노력해왔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